



## < 이중섭 > (1916~195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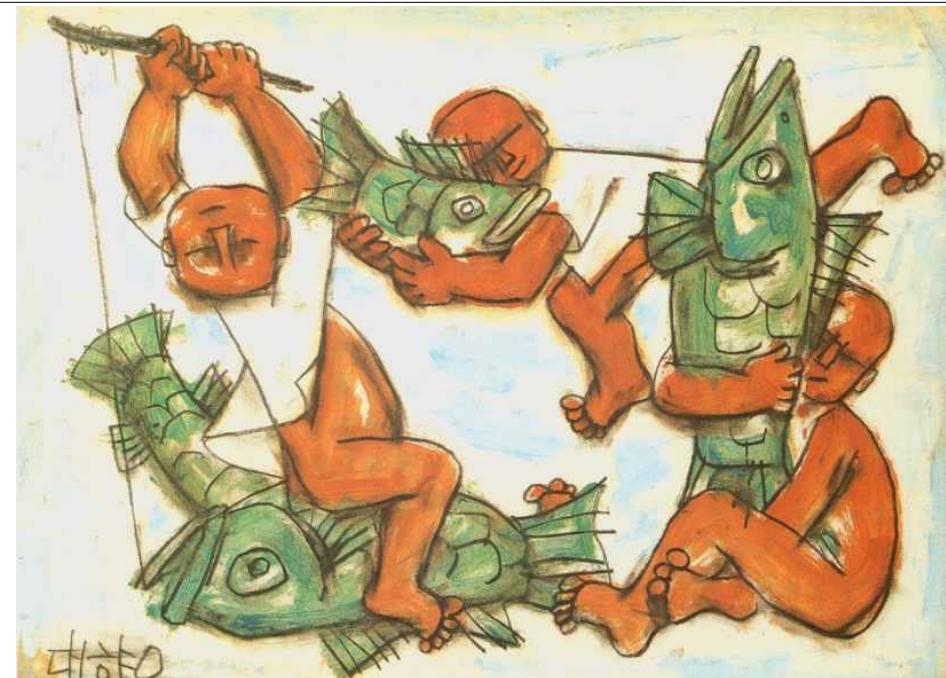
한국의 대표적인 서양화가  
주로 소와 아이를 그렸다.  
한국 근대미술의 대표적인  
화가로 손꼽힌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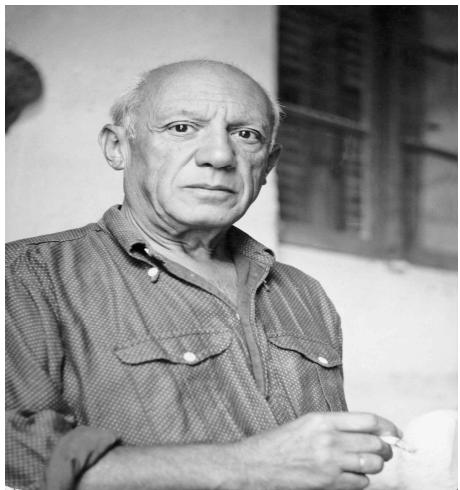
< 흰소 >



< 서귀포의 환상 >



< 물고기와 노는 세 아이 >



## < 파블로 피카소 > (1881~197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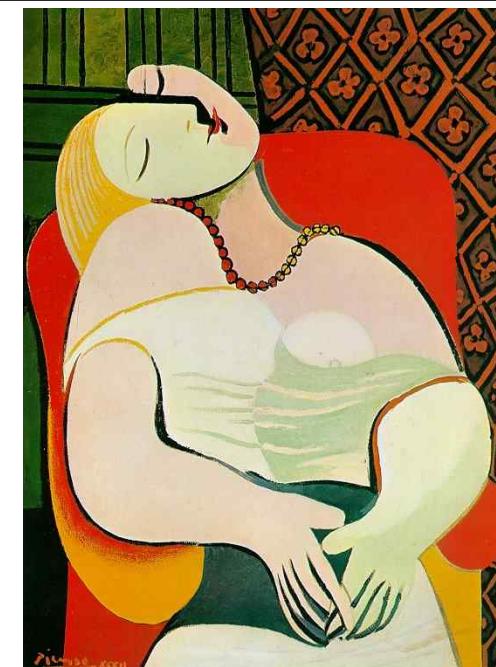
20세기를 대표하는  
스페인 입체파 화가.  
대상의 여러 측면을 그리는  
입체적 기법으로  
그림을 그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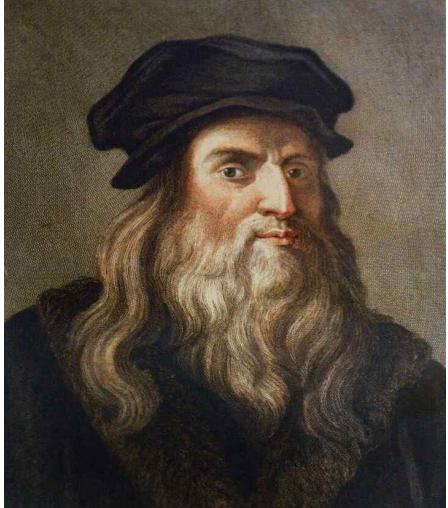
< 우는 여인 >



< 게르니카 >



< 꿈 >



## < 레오나르도 다빈치 > (1452-1519)

르네상스 시대  
이탈리아를 대표하는  
천재적 미술가, 과학자,  
기술자, 사상가.  
<최후의 만찬> 등의  
대작을 그렸다.



< 모나리자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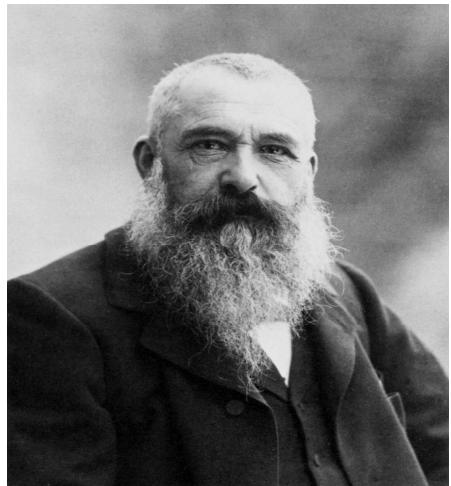


< 최후의 만찬 >



< 수태고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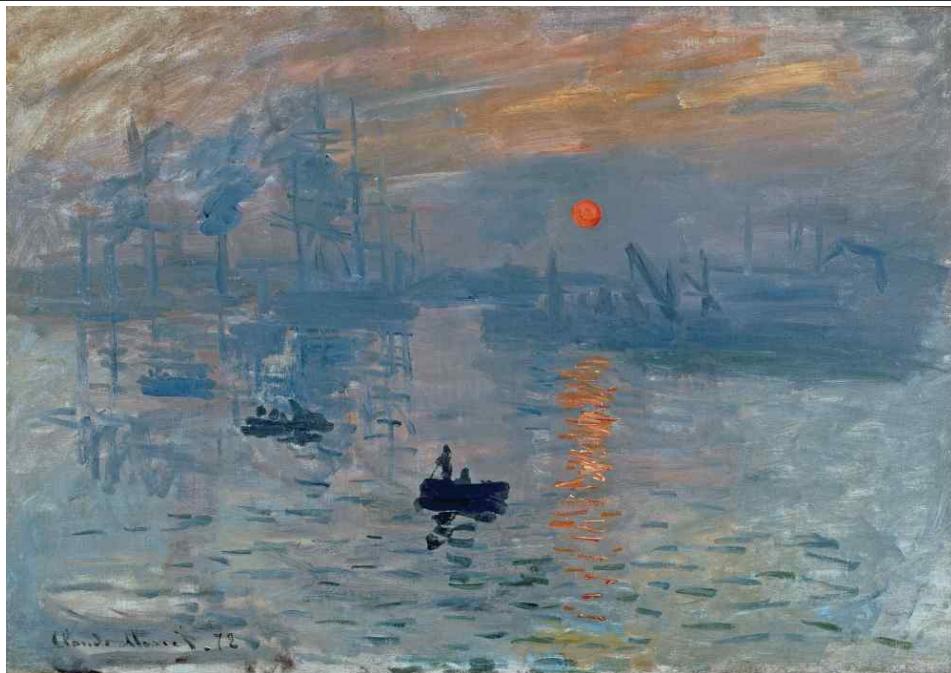
## < 클로드 모네 > (1840-1926)



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 
'빛은 곧 색채'라는  
인상주의 원칙을 지키며,  
연작을 통해 같은 사물이  
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 
탐색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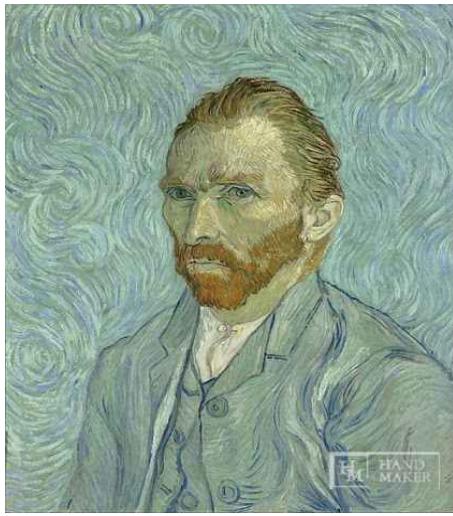
< 파라솔을 든 여인 >



< 인상, 해돋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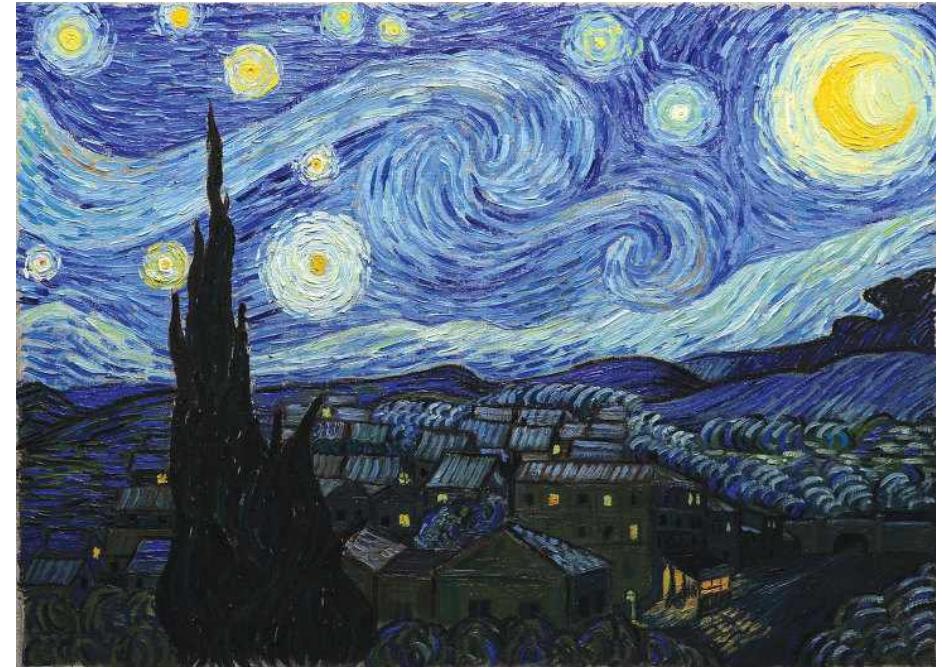


< 수련 >



< 빈센트 반 고흐 >  
(1853-189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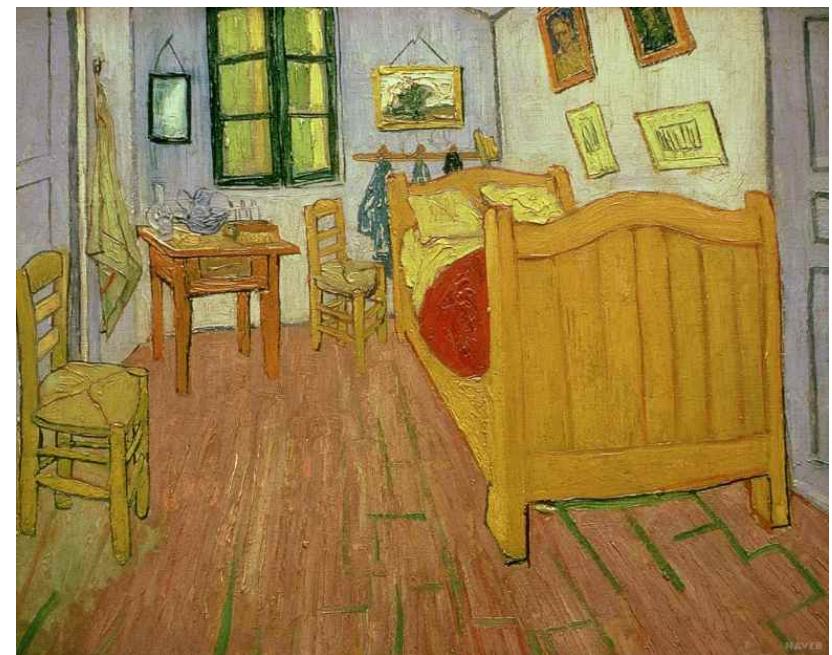
네덜란드의  
후기 인상주의 화가.  
짧은 생애였지만  
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 
미술가로 남아있다.



< 별이 빛나는 밤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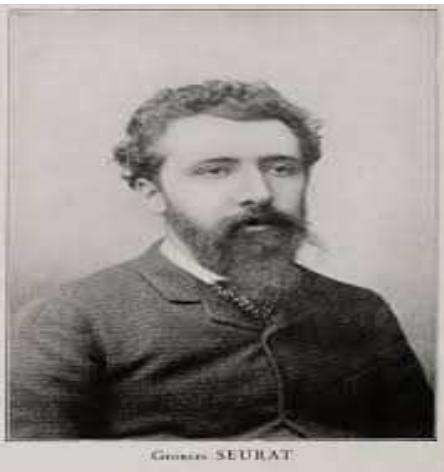


< 해바라기 >



< 고흐의 방 (아를의 침실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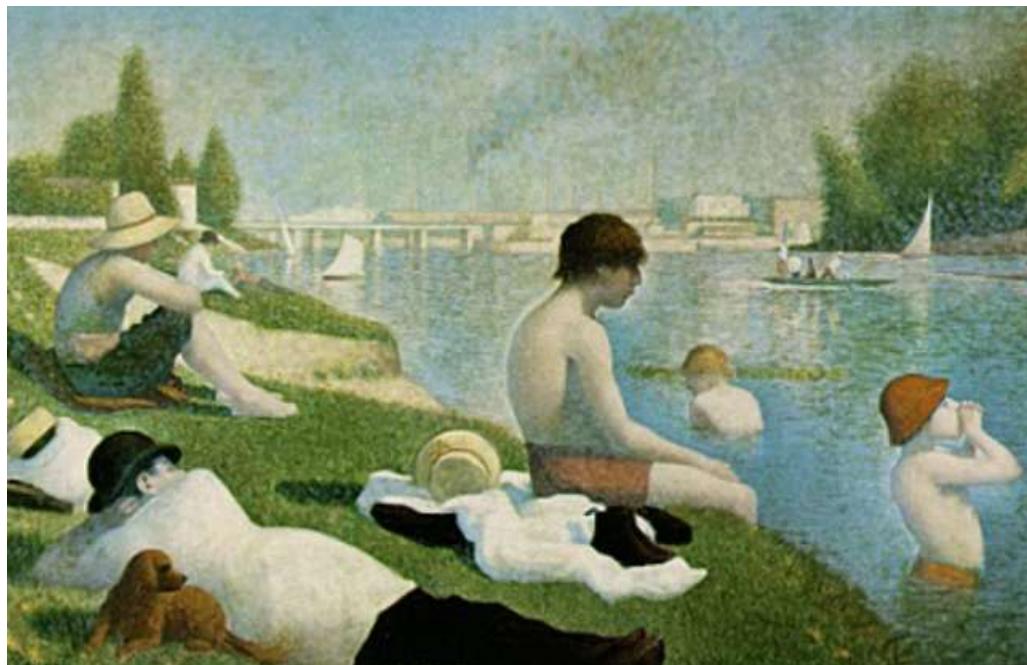
## < 조르주 피에르 쇠라 > (1859-189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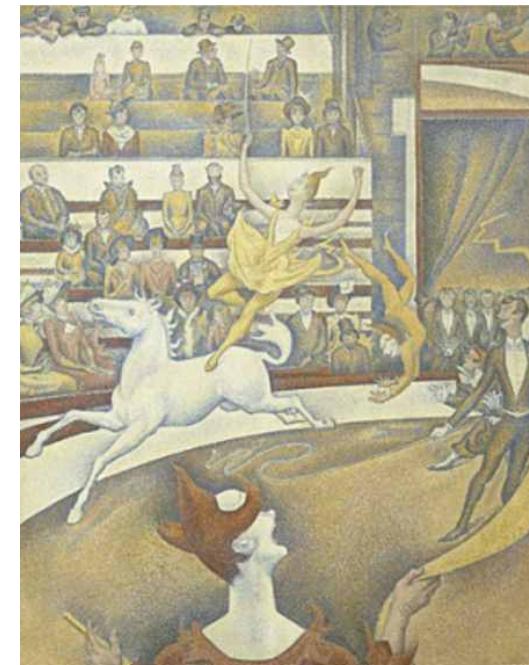
프랑스의 인상파 화가.  
여러 색깔의  
작은 점을 찍어  
빛의 움직임을 표현한  
점묘법을 사용.



<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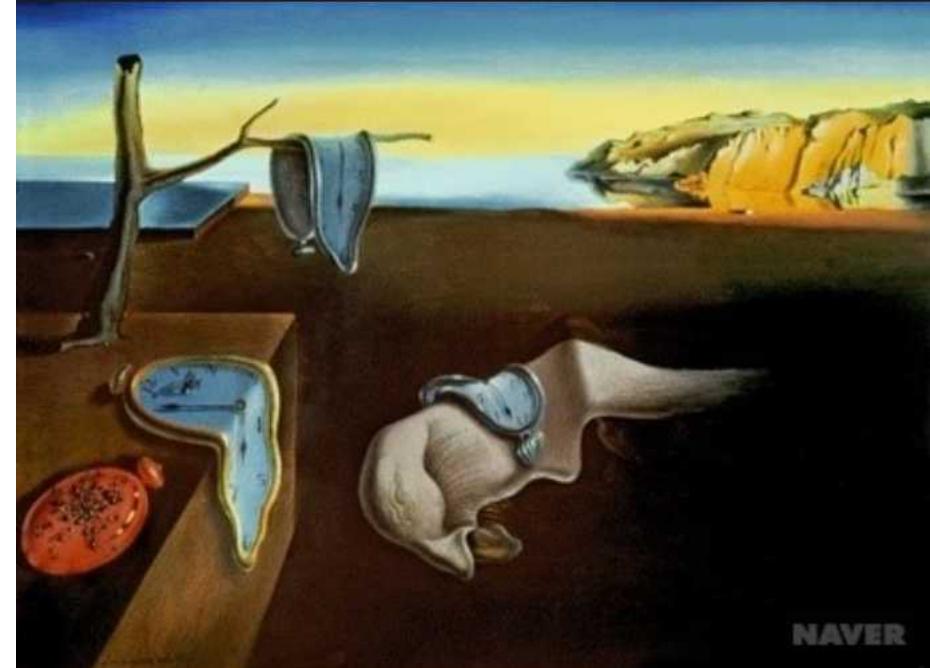
< 아스니에르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 >



< 서커스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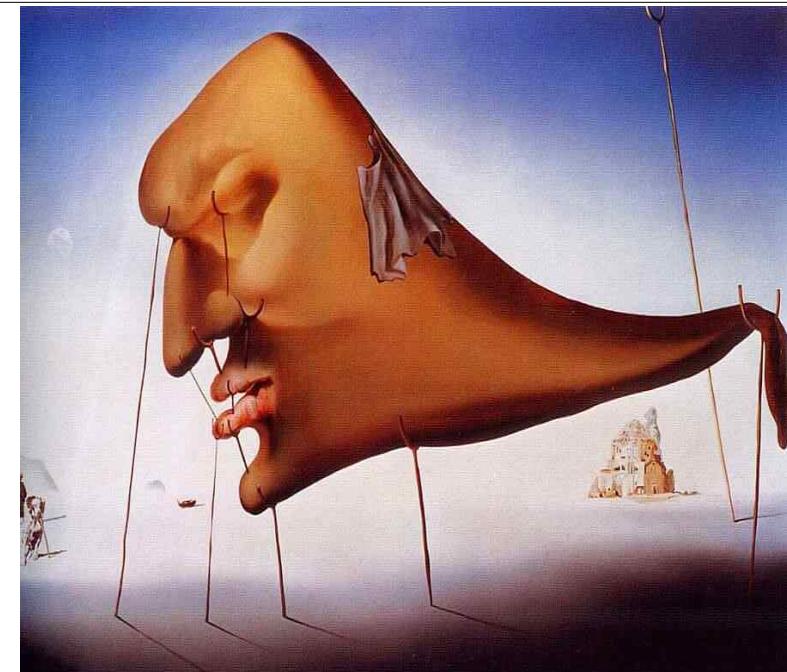
## < 살바도르 달리 > (1904-1989)

에스파냐의  
초현실주의 화가.  
꿈이나 환상의 세계를  
표현했다.



NAVER

## < 기억의 지속 >



## < 끝없는 수수께끼 >

## < 잠 >



< 장 프랑수아 밀레 >  
(1814-1875)

에스파냐의  
초현실주의 화가.  
꿈이나 환상의 세계를  
표현했다.



< 만종 >



< 이삭 줍는 여인들 >



< 씨 뿌리는 사람 >



## < 백 남준 > (1932-2006)

한국 출신의  
**비디오아트** 예술가  
텔레비전을 표현 매체로  
표현하는 예술.



< TV첼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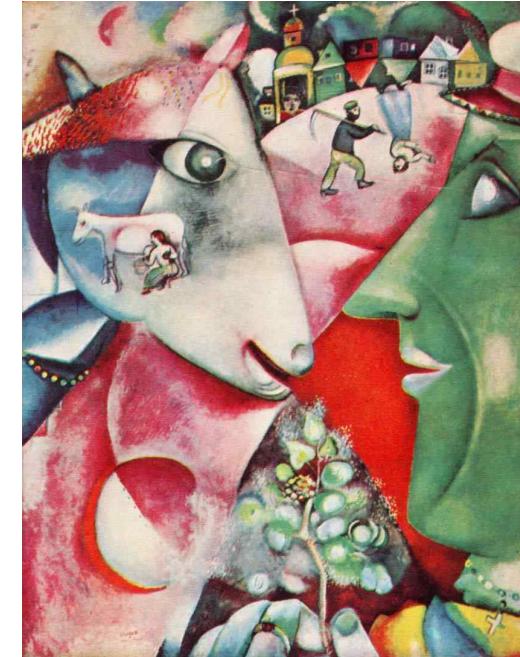


< 다다익선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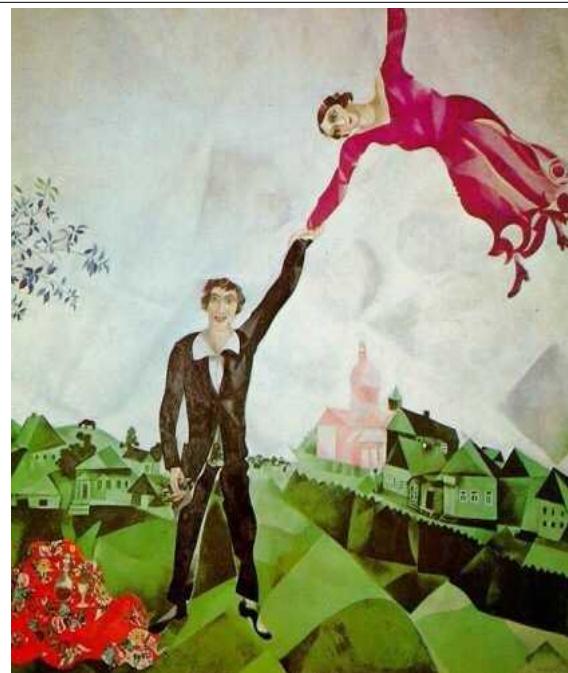


< 마르크 샤갈 >  
(1887-198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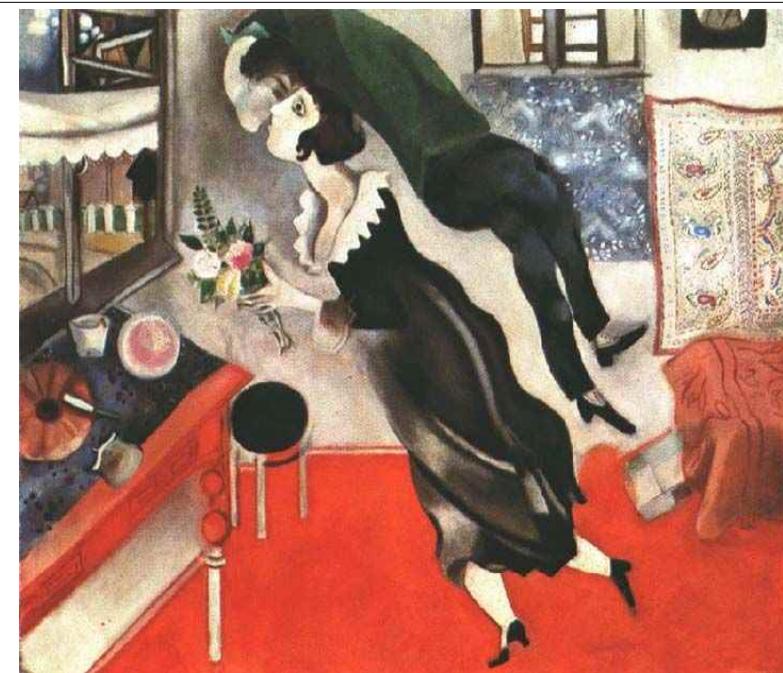
러시아 출신의  
프랑스 표현주의 화가.  
샤갈의 작품 주제는  
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 
영원의 사랑이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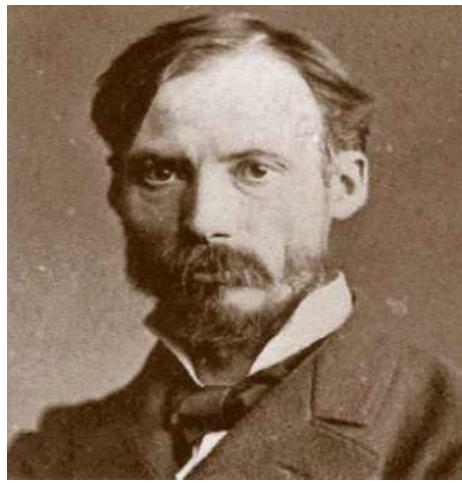
< 나와 마을 >



< 산책 >



< 생일 >



## < 오귀스트 르누아르 > (1841-1919)

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.  
다양한 주제의 그림을  
그렸지만, 주로 ‘행복’의  
메시지를 담았다.



< 뱃놀이 후의 점심 >



< 피아노 치는 소녀들 >



<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 >

## < 신윤복 > (1758-사망년도 모름)

조선 후기의 풍속화가.  
김홍도, 김득신과 더불어  
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로 불린다.



< 쌍검대무 >



< 미인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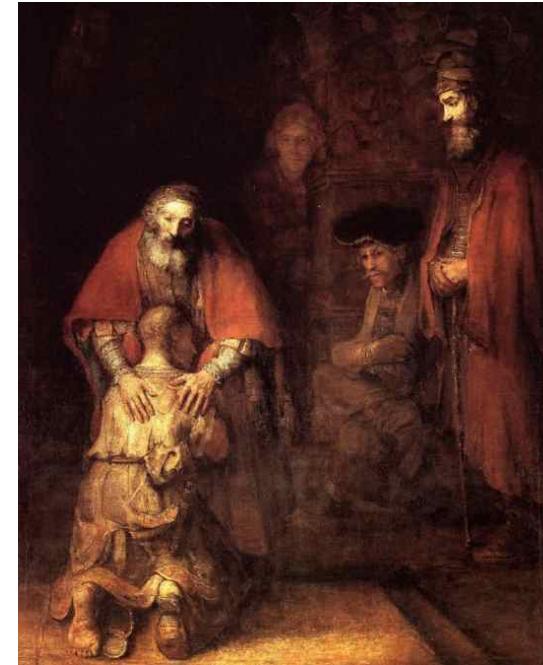


< 월하정인 >

## < 렘브란트 > (1606-1669)



네덜란드 예술의 황금시대를  
열었으며, 서양 미술사상  
17세기의 가장 위대한  
화가로 꼽힌다.  
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 
섞어 표현하는  
기법을 사용했다.



< 탕자의 귀향 >



< 야경 >



< 웃는 자화상 >



## < 쿠사마 야요이 > (1929~ )

일본의 설치미술가  
그녀의 표현 주제는  
반복적인 물방울 무늬와  
호박으로 대표할 수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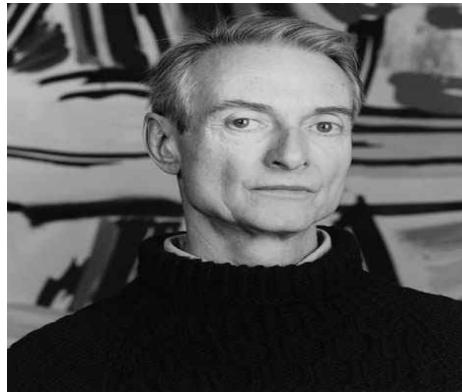
< 거울의 방 >



< 호박 >



< 소멸의 방 >



<로이 리히텐슈타인>  
(1923-1997)

앤디 워홀과 더불어  
미국 팝아트를  
대표하는 화가



<행복한 눈물>



< 절망 >



< 차 안에서 >



<에바 알머슨>  
(1969~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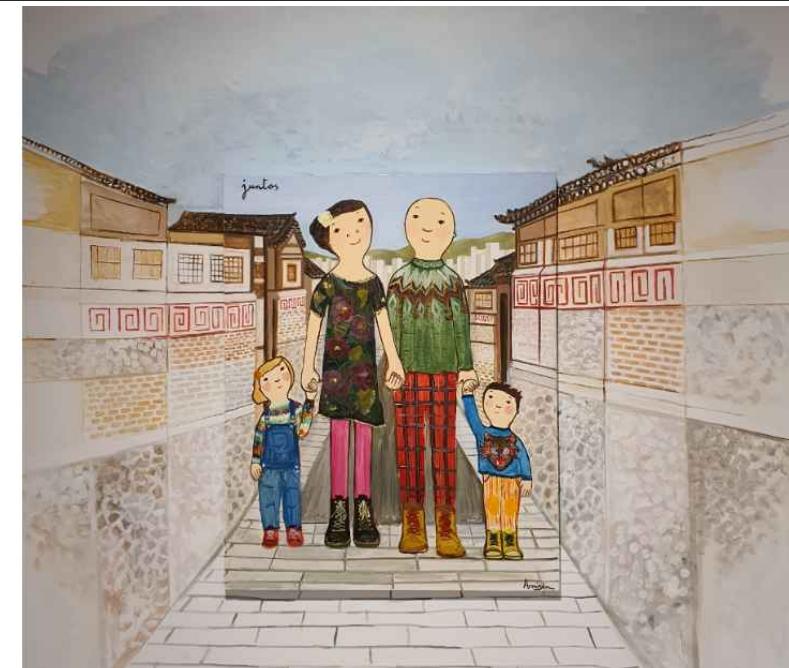
스페인 화가  
'행복을 그리는 화가'라고  
불린다.



< 행복 >



< 페트라와 함께 있는 자화상 >



< 함께 >